

간호대학생의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 자아탄력성 및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박미숙¹, 오청욱¹, 강혜경^{2*}

¹한국교통대학교 간호학과, ²남부대학교 간호학과

Relationships among Bullying, Ego-Resilience, Perceived Stress, and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Mi Sook-Park¹, Chung-Uk Oh¹, Hye-Kyung Kang^{2*}

¹Department of Nursi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²Department of Nursing, Namb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 자아탄력성, 지각된 스트레스 및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4년제 일개 간호대학의 전 학년 21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는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 자아탄력성 및 지각된 스트레스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ASW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활 적응은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r=-.261, p<.001$)과 지각된 스트레스($r=-.340, p<.001$)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아탄력성($r=.337, p<.001$)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간호대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beta=-.216, p=.003$), 전공만족도($\beta=-.245, p<.001$), 성적($\beta=.210, p=.028$) 그리고 자아탄력성($\beta=.236, p=.001$)이었으며 29.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각적이고 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시대에 맞는 대학적응 프로그램을 강화,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것을 제언한다.

• **주제어** : 간호대학생,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 자아탄력성, 지각된 스트레스, 적응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bullying, ego-resilience, perceived stress and adaptation on college in nursing students. A total of 212 students from 1-4 grade in one nursing college were recruited into the study.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 about bullying, ego-resilience, perceived stress and adaptation and were analyzed with PASW Statistics 18.0 program. Bullying and perceived stress had a significant negative association with nursing college adaptation($r=-.261, p<.001$; $r=-.261, p<.001$) and nursing college adapt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ego-resilience($r=.337, p<.001$).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nursing college adaptation were grade($\beta=-.216, p=.003$), satisfaction with major($\beta=-.245, p<.001$), the latest semester grade($\beta=.210, p=.028$) and ego-resilience($\beta=.337, p<.001$), explaining 29.1% of the variance in nursing college adaptation($F=9.691, p<.001$). According to the results, ego-resilience could be a key factor to improve college adaptation and bullying and perceived stress were associated with adaptation. Therefore many trials have to be need for enhancing college adaptation in a multiple and convergent way and it is suggested that the program to strengthen college adaptation should be developed.

• **Key Words** : Nursing students, Bullying, Ego-resilience, Perceived stress, Adaptation

*Corresponding Author : 강혜경(kanghk@nambu.ac.kr)

Received December 19, 2016

Revised January 18, 2017

Accepted February 20, 2017

Published February 28, 201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생 10명당 7명이 대학에 진학할 만큼[1] 많은 청소년이 대학생활을 통해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준비한다. 대학교는 사회적 학습과 인간관계 등에 대해 학습하는 대표적인 교육기관 중의 하나로 대학생활은 자아정체감을 발달시키고 졸업 후 직장을 얻기 전의 준비시기로[2]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 불안, 좌절, 우울 등을 경험하게 되어 정신적 건강에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3].

일반적으로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성격유형, 인간관계, 학습동기 등이[4], 대인적 측면으로는 교수와의 관계[5], 집단상담 프로그램[6] 등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대인관계[7], 자아탄력성[8], 감성지능[9],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선택[10] 등이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은 교육과정의 특성상 타 학과에 비해 많은 실습시간 및 학점 이수[3,11]를 하며 임상실습 과정 동안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12]. 이와 관련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엄마와의 애착, 실습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및 대처방식[13], 전공 만족도와 심리적 요인[14], 자아탄력성, 연령 및 성별, 전공 만족, 학업성취도, 자신감 그리고 감정조절의 영향력[15] 등이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직장과 군대 내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이 우리 사회에서 단순히 아동청소년기의 일시적 현상이 아닌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만큼[16], 학교와 집단 또는 조직에서의 따돌림 또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016년 교육부의 학교 폭력실태조사에서 1위인 언어폭력에 이어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은 2위를 차지할 만큼 그 심각성이 크다[17]. 이와 관련해 대학에서의 괴롭힘 역시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며, 간호대학생의 경우에도 괴롭힘(bullying)이 보고가 되는 만큼 예외일 수 없다[18,19]. 지난 10년간 간호학과 입학자 수는 2006년 1만1147명에서 2015년 2만3642명으로 112%의 급격한 증가를[20] 보여 많은 양적인 팽창을 이루었고, 학생들은 학과내의 많은 학생들과의 경쟁을 시작으로 취업을 위한 타 대학의 수많은 학생들과도 더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함으로써 지속적인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스트레스는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따라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개인의 역량과 관계가 있으며, 개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내적 극복력은 '자아탄력성'으로 해석되어 접근되고 있다[21].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적절한 자아통제를 통해 융통성 있게 반응하여 성공적인 적응을 이루는 능력이며,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자기 확신과 수용이 높고, 개인의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며, 인지 능력이 높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22]. 따라서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해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 지각된 스트레스 그리고 자아탄력성과의 관계의 파악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 자아탄력성 정도와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미래의 간호사로서 대학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한 다각적이고 융합적인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 자아탄력성 및 지각된 스트레스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이 변수들 간의 관계 및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별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 자아탄력성, 지각된 스트레스 및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 자아탄력성, 지각된 스트레스 및 대학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 자아탄력성, 지각된 스트레스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이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J 지역에 위치한 종합대학교의 4년제 간호

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6년 8월 25일부터 9월 15일 까지 조사하였다. 표본수는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one-way ANOVA 분석을 기준하여 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를 입력한 결과 최소 172명 이상으로 산정되었고,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연구대상자 간호학부 222명 전체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중 설문에 답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응답자 10명을 제외한 212명(94.6%)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와 함께 원하는 경우 철회 가능하고, 참여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 후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 연구 참여 대상자를 보호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은 'bullying'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이는 한 학생이 집단에서 다른 학생의 부정적 행위에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23].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 Olweus[23]의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 질문지를 번안 사용한 최은숙과 채준호[24]의 척도를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으로 물리형 6문항, 소외형 10문항 그리고 언어형 8문항으로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기 보고식 질문지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걸쳐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최은숙과 채준호 연구[24]에서는 전체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 가 .98이었고, 본 연구는 .97이었다.

2.3.2 자아탄력성

자아 탄력성은 피할 수 없는 주어진 상황에 맞춰 스스로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확장하며 또한 정서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21]. Block과 Kermen [21]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는 환경맥락이 요구하는 자기-통제 수준을 조정하는 역동적인 능력인 자아탄력성 정도를 측정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유성경과 심혜원[25]이 번안 및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4개의 문항으로 관계(3문항), 호기심(5문항), 감정통제(2문항), 활력

(2문항), 낙관성(2문항)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의 Likert 척도이며, 점수범위는 14-5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이 요구되는 스트레스 사건 경험 후에 개인의 자기-통제 수준으로 다시 돌아오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Block 과 Kermen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4이고, 본 연구에서는 .78이었다.

2.3.3 지각된 스트레스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Cohen과 William이 개발한 Perceived Stress Scale (PSS)[26]을 박준호와 서영석[27]이 번안하여 타당화를 실시한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0점(전혀 아니다)부터 4점(매우 자주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박준호와 서영석[2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1,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2.3.4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 적응은 학업과 관련된 생활과 대인관계, 활동 등의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며 자신이 다니는 대학, 학생에 대한 애착이나 유대감을 전반적으로 갖는 것을 의미한다[3]. 대학생활 적응은 Baker와 Siryk[28]가 개발한 대학생활 적응척도를 박은희[29]가 수정·보완한 한국판 대학생활 적응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5개의 영역(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관한 애착)으로 분류되며, 총 25문항 5점 척도로(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은희[29]연구의 Cronbach's α 는 .93이었고, 본 연구는 .94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의 기술통계를 시행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 자아탄력성, 지각된 스트레스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cheffé를 이용, 사후검증을 하였다. 셋째, 관련변수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사용하였다. 넷째, 대학생활 적응의 영향요인 파악을 위하여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20~21세가 91명(4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 181명(85.4%), 남성은 31명(13.6%)이었고, 종교를 가진 학생(37.7%)보다 무교인 학생이(62.3%) 많았다. 전공만족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54.7%), 매우 높은 편이다(14.2%), 보통 이하이다(31.1%) 순이었으며, 성적은 3.0~4.0미만(75%), 3.0미만(14.2%), 4.0 이상(10.8%) 순이었고, 학업에 대한 목표가 있다는 148명(69.9%), 없다는 64명(30.2%)으로 나타났다 <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12)

Characteristic	n	%	
Age	≤ 19	70	33.0
	20~21세	91	42.9
	≥ 22	51	24.1
Gender	male	31	14.6
	female	181	85.4
Grade	1st	57	26.9
	2nd	60	28.3
	3rd	56	26.4
	4th	39	18.4
Religion	Yes	80	37.7
	No	132	62.3
Satisfaction with major	Very satisfaction	30	14.2
	satisfaction	116	54.7
	below Moderate	66	31.1
The latest semester grade	< 3.0	30	14.2
	3.0~4.0	159	75.0
	> 4.0	23	10.8
Having concrete goal	Yes	148	69.8
	No	64	30.2
total	212	100.0	

3.2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 자아탄력성, 지각된 스트레스 및 대학생활 적응 점수

대상자의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의 전체 평균은 2.09점(±.31)이었으며, 자아탄력성은 2.76점(±.37), 지각된 스트레스는 2.92점(±.44)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의 전체 평균은 3.40점(±.46)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Mean scores of variables (N=212)

Variable	M±SD	Min	Max
Bullying	2.09±.31	1	3
Ego resilience	2.76±.37	1	4
Perceived stress	2.92±.44	1	5
College life adaptation	3.40±.46	1	5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 자아 탄력성, 지각된 스트레스 및 대학생활 적응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영역별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에서는 연령, 성별, 학년 및 종교 등을 포함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아탄력성 영역에서는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3.01점)가 자아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 이하는 2.64점으로 낮은 전공만족도를 보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1$). 또 목표를 가진 경우는 2.81점, 목표가 없는 경우는 2.67점으로 나타나, 목표를 가졌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자아탄력성을 보였다($p<.05$). 이어 지각된 스트레스에서는 연령이 20~21세(3.01점)에서 가장 높았으며, 19세 이하는 2.7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p<.01$). 학년별로는 3학년 이상에서 높았으며, 1학년이 상대적으로 낮아($p<.001$) 연령과 학년에 따라 지각하는 스트레스에 차이를 보였다<Table 3>.

3.4 변수 간 상관관계

영역별 관계에서는 대학생활 적응이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r=-.261$)과 지각된 스트레스($r=-.340$)에서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자아탄력성($r=.337$)과는 유의한 양의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212)

Category	Bullying	Ego Resilience	Perceived Stress	College Life Adaptation
	r(ρ)	r(ρ)	r(ρ)	r(ρ)
Bullying	1			
Ego resilience	.018	1		
Perceived stress	.146 ($p<.05$)	-.024	1	
College life adaptation	-.261 ($p<.001$)	.337 ($p<.001$)	-.340 ($p<.001$)	1

<Table 3> Difference of the Bullying, Ego Resilience, Perceived Stress and College Life Adapt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12)

Characteristics	Bullying		Ego resilience		Perceived stress		College life adaptation		
	Mean±SD	t/F(ρ) Scheff	Mean±SD	t/F(ρ) Scheff	Mean±SD	t/F(ρ) Scheff	Mean±SD	t/F(ρ) Scheff	
Age	≤ 19 ^a	2.05±.21		2.76±.30		2.77±.47	6.28	3.48±.46	
	20~21세 ^b	2.12±.40	0.95 (.388)	2.71±.38	2.37 (.095)	3.01±.40	(.002)	3.35±.49	1.45 (.236)
	≥ 22 ^c	2.11±.27		2.86±.43		2.97±.42	b>c>a	3.38±.44	
Gender	male	2.08±.23	0.28 (.773)	2.85±.43	1.42 (.154)	2.89±.48	0.45 (.647)	3.42±.47	0.22 (.821)
	female	2.09±.33		2.75±.36		2.93±.43		3.40±.47	
Grade	1st ^a	2.04±.22		2.78±.35		2.77±.47		3.51±.46	
	2nd ^b	2.11±.38	0.89 (0.442)	2.68±.32	1.76 (.154)	2.87±.45	5.39 (.001)	3.36±.48	2.84 (.039)
	3rd ^c	2.09±.27		2.78±.40		3.02±.37	c,d>b>a	3.44±.43	a>c>b>d
	4th ^d	2.14±.38		2.85±.44		3.08±.42		3.25±.48	
Religion	yes	2.09±.24	0.01 (.929)	2.80±.33	1.30 (.254)	2.98±.39	2.23 (.136)	3.38±.44	0.36 (.549)
	no	2.09±.35		2.74±.40		2.89±.47		3.42±.49	
Satisfaction with major	Very satisfaction	2.03±.10		3.01±.35	10.97 (.000)	2.96±.39	0.16 (.850)	3.80±.40	21.34 (.000)
	satisfaction	2.09±.33	0.82 (.439)	2.77±.38	a>b>c	2.91±.46		3.42±.42	
	below Moderate	2.12±.35		2.64±.30		2.91±.43		3.19±.45	a>b>c
The latest semester grade	< 3.0 ^a	2.01±.04		2.87±.46		2.88±.44		3.22±.44	4.60 (.011)
	3.0~4.0 ^b	2.11±.36	1.30 (.274)	2.74±.35	1.73 (.179)	2.94±.45	0.40 (.668)	3.41±.48	
	> 4.0 ^c	2.07±.18		2.81±.39		2.87±.37		3.60±.38	c>d>a
Having concrete goal	yes	2.11±.37	1.01 (.315)	2.81±.38	2.45 (.015)	2.94±.44	1.13 (.260)	3.45±.49	2.14 (.033)
	no	2.06±.14		2.67±.34		2.87±.44		3.30±.41	

3.5 대학생활 적응 영향 요인

간호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 자아탄력성, 지각된 스트레스 및 대학생활 적응 그리고 일반적 특성 중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년, 전공만족도, 성적 및 목표 변인을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학년, 전공만족도, 성적 그리고 자아탄력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9.1%(F=9.691, p<.001) 였다<Table 5>.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the College Life deputation (N=212)

Variable	B	SE	β	t	p	VIF
Constant	2.663	.376		7.082	.000	
Grade	-.095	.026	-.216	-3.679	.003	1.087
Satisfaction with major	-.176	.046	-.245	-3.828	.000	1.286
The latest semester grade	.197	.056	.210	3.545	.028	1.108
Having concrete goal	-.040	.060	-.039	-.656	.512	1.105
Bullying	.159	.123	.100	1.300	.195	1.863
Ego resilience	.186	.057	.236	3.288	.001	1.625
Perceived stress	.073	.080	.069	.905	.366	1.809

R²= .309, Adjusted R²=.291, F=9.691(p<.001)
SE : standard error;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적응과 관련된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 자아탄력성, 지각된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확인하여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간호학과의 융합적인 방안 모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그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에 대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국내 간호대학생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에 대한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본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데 제한이 따르지만 본 연구의 대학생활 적응이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r=-.261)과 지각된 스트레스(r=-.340)에서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인만큼 사회적으로 점점 문제가 되어가는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에 대한 경계심을 간호학과 및 대학은 간과 하면 안 될 것이다. 따돌림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는 초 등학생 시기부터 대학생 시기까지 따돌림으로부터 예외 적인 시기는 없다고 한다[30]. 최근에는 직장따돌림의 실태와 심각성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고, 간호 조직 역시 예외는 아니다. 간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은 폭언, 욕설, 따돌림, 업무 관련 괴롭힘, 신체적 위협 등으로 병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간호사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는 비율에 있어 국내 생산직, 서비스직, 금융직 등의 분야에서 근무한 일반

직장인에 비해 높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31,32]. 이런 조직 내 괴롭힘을 경험하는 간호사의 신체적·정신적 결과는 자연스레 간호를 제공받는 대상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만큼 미래의 간호사로서 대학교육과정을 밟고 있는 간호대학생들의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과 관련한 윤리 및 내적 극복을 위한 자아탄력성 등의 관련 교육과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어 대학생활 적응에 자아탄력성이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r=.337$)를 나타내고, 동시에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영향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자아탄력성이 간호대학생의 적응의 예측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15,33]를 지지하였다. 자아탄력성은 낮은 상황에서 융통성과 문제해결능력을, 대인관계에서는 공감능력을 그리고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유연하게 대처하게 하는 등[34]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 중요 요소가 된다. 특히 임상실습의 낮은 환경과 현장실습지도자 및 함께 실습하는 동료학생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와의 관계 등을 극복하고 적응능력을 향상 하는데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우선 고려되어야 할 요소임은 분명하다. 이외 학년, 전공만족도 그리고 성적이 간호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14,15]의 일부 영향요인과 일치하였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임상간호 실습과목과 그에 대한 학점의 비중이 증가하여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 성적도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간호임상실습과 관련한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와 성적이 높고, 전공에 대한 목표를 가질 때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최근의 교육형태가 융합인재 양성을 지향함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인턴쉽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35] 만큼 전공만족도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위한 산업체와 학교간의 융합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요구된다.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해서 본 연구결과에서는 3학년 이상에서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임박해오는 취업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함께 임상 현장실습을 처음 수행하는 학년이 3학년으로 또 다른 적응을 시작하는 시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결과는 간호학과 학생의 스트레스 대처양상에 따른 간호교육과 임상실습에 대한 개별화된 중재전략의 중요성을 주장한

김윤정[36]의 연구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각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강화와 신체 활동 증진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교육과정 운영의 관심과 함께 학년별로 나아가 개별화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대학이라는 학문의 장은 학문의 심도 있는 연구의 장에서 더 나아가 사회진출을 위한 하나의 발판이자 전 단계로서 대내외 적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특히 간호대학은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하듯이 다른 타과에 비하여 취업률이 높다는 시대적 흐름에 힘입어 양적팽창과 성장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간호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과학으로 전 교육과정은 간호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도덕적으로도 성숙한 간호사를 배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을 포함하여 스트레스나 다양한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만큼 간호대학생에 적합한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고, 오늘날 자칫 양적인 팽창으로 인한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 같은 간호대학생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유연한 대처와 예방 그리고 극복을 위한 다제학적이고 융합적인 방안이 연구, 논의되어야 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 자아탄력성 및 지각된 스트레스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 및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직업 특성상 대학생활의 원만한 적응은 간호사의 직업적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학교와 관련 교육자들은 간호대학생들의 적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 자아탄력성, 지각된 스트레스를 포함한 관련 요소들을 파악하여 원만한 대학생활을 도모하고 조력해야 하며, 본 연구가 일개 대학의 대상자로 시행된 만큼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 자아탄력성의 요소가 포함된 후속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Social Indicators of Korea- University

- entrance rate 2014”, Statistics Korea, 2015.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34501
- [2] Y. W. Lee, Y. J. Lee, “A Stud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Daily Life Stress, Self-efficacy and University Student Life Adjust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5, No. 4, pp. 664-671, 2005.
- [3] K. H. Kim, E. S. Kim,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Self-esteem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Stress Coping”,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4, No. 3, pp. 1519-1533, 2012.
- [4] J. Y. Kim, “Relationships between freshman’s self-leadership and adjustment to college”,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32, No. 6, pp. 43-56, 2013.
- [5] Y. S. Ryu, “The relationship between faculty trust and school adjustment level: An examination of communit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Vol. 42, pp. 245-263, 2012.
- [6] H. K. Lee, “The effect of experience related to the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on the career development and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8, No. 4, pp. 1501-1520, 2007.
- [7] J. Y. Kim, “Factors associated with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Sungshin, Seoul, 2014.
- [8] A. S. Lenz, “Mediating Effects of Relationships with Mentors on College Adjustment”,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Vol. 17, pp. 195-207, 2014.
<https://doi.org/10.1002/j.2161-1882.2014.00057.x>
- [9] H. T. Park, “A study on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first 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 -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3, pp. 1576-1583, 2014.
<https://doi.org/10.5762/KAIS.2014.15.3.1576>
- [10] Y. H. Kim, “The Effects of College Life Adapt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Adaptation and Nursing Professional Attitud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 -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2, pp. 8948-8956, 2015.
<https://doi.org/10.5762/KAIS.2015.16.12.8948>
- [11] H. J. Lee, “Convergence Study on Nursing Students’ Stress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4, pp. 75-83, 2016.
<https://doi.org/10.15207/JKCS.2016.7.4.075>
- [12] L. Last, P. Fulbrook, “Why Do Student Nurses Leave? Suggestions from ad Delphi Study”, *Nurse Education Today*, Vol. 23, No. 6, pp. 449-458, 2003.
- [13] E. A. Kim, K. S. Jang,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2, pp. 312-322, 2012.
<https://doi.org/10.5977/jkasne.2012.18.2.312>
- [14] J. W. Lee, Y. S. Eo, “Effect of clinical stress and stress coping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7, No. 2, pp. 125-134, 2013.
<https://doi.org/10.12811/kshsm.2013.7.2.125>
- [15] J. A. Park, E. K. Le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7, No. 3, pp. 267-276, 2011.
- [16] J. E. Lee,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st Bullying experience during adolescence and Adjustment to college: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of Sungshin, 2016.
- [17] J. S. Kim, news ‘EDUDONGA’ from
http://edu.donga.com/?p=article&ps=view&at_no=20160718123323999874 accessed July, 18th, 2016.
- [18] M. A. Cassell, “Bullying in academe: Prevalent, significant, and incessant. 2010 International Applied Business Research (IABR) & International College Teaching and Learning (ITLC) Conference Proceedings 2010”, Retrieved from
<http://files.eric.ed.gov/fulltext/EJ1072863.pdf>
- [19] S. S. Celik, N. Bayraktar, “A study of nursing

- student abuse in Turkey”,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43, No. 7, pp. 330-336, 2004.
- [20] O. S. Kim, news ‘dongA’ from <http://news.donga.com/3/all/20161011/80723901/1#csidx4ebeeca9461e9598a59750c61a2a367>
- [21] J. H. Block, A. M. Kremen,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2, pp. 349-361, 1996.
- [22] J. H. Park, J. M. Park, “The effects of Children’s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Exam Anxiety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31, No. 6, pp. 125-134, 2010.
- [23] Olweus D. Bully/Victim questionnaire for students.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Bergen, 1989.
- [24] E. S. Choi, J. H. Chae, “A study of psychological factors associated with bullying”,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Vol. 21, pp. 109-137, 2000.
- [25] S. Y. Yoo, H. W. Shim,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The Korea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6, No. 4, pp. 189-206, 2002.
- [26] S. Cohen, G. M. Williamson, Perceived Stress in a probability sample of the United States, In S. Spacapan & S. Oskamp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health*, Newbury Park, CA: Sage.
- [27] J. O. Park, Y. S. Seo, “Validation of the perceived stress scale (PSS) on sample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Vol. 29, No. 3, pp. 611-629, 2010.
- [28] R. W. Baker, B. Siryx,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Vol. 31, pp. 179-189, 1984.
- [29] E. H. Park, “Mediation Effects of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the Relations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Adaptation to Colle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Kyungil, Gyeongsan, 2014.
- [30] J. Y. Park, Y. S. Kang, “A Qualitative Study for Experience of College Bullying”,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nference*, No. 8, pp. 341, 2016.
- [31] E. H. Han, Y. M. Ha,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Social Support,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Experience of Workplace Bullying, and Consequence of Workplace Bullying in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2, No. 3, pp. 303-312, 2016. <https://doi.org/10.11111/jkana.2016.22.3.303>
- [32] M. A. Lewis, “Nurse bullying: organizational considerations in the maintenance and perpetration of health care bullying cultures”,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Vol. 14, pp. 152-158, 2006. <https://doi.org/10.1111/j.1365-2934.2005.00535.x>
- [33] Y. K. Kwag,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5, pp. 2178-2186, 2013. <https://doi.org/10.5762/KAIS.2013.14.5.2178>
- [34] Y. J. Lee, H. Y. Min, Y. M.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adult attachment types, and college adjustment”,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5, No. 4, pp. 125-144, 2004.
- [35] G. S. Oh, M. K. Lee, “An Internship Experience to Convergence Program for Undergraduated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173-185, 2015. <https://doi.org/10.15207/JKCS.2015.6.5.173>
- [36] Y. J. Kim, “Type of Coping with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5, No. 3, pp. 29-39, 2014. <https://doi.org/10.15207/JKCS.2014.5.3.029>

저자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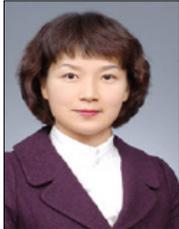
박 미 숙(Mi-Sook Park) [정회원]



- 1983년 2월 : 국군간호사관학교 (간호학사)
- 1992년 2월 : 경북대학교대학원 (간호학 석사)
- 2001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

- 1992년 3월 ~ 1997년 8월 :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수
- 1997년 9월 ~ 현재 : 한국교통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피로, 간호교육, 노인간호, 감염관리

오 청 욱(Chung-Uk Oh) [정회원]



- 2002년 2월 :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스포츠의학과 (체육학 석사)
- 2014년 2월 : 카톨릭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 박사)
- 2014년 3월 ~ 2016년 2월 :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6년 3월 ~ 현재 : 한국교통대학교 간호학과 외래 교수
- <관심분야> : 대체의학, 호스피스

강 혜 경(Hye-Kyung Kang) [정회원]



- 1998년 2월 : 국군간호사관학교 (간호학사)
- 2010년 8월 : 한양대학교임상간호정보대학원 (간호학 석사)
- 2014년 8월 : 한양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 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남부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노인간호, 치매간호, 기초간호과학, 재활간호